〈옹고집전〉 샘플 대본

1. 이 작품은 고전 〈옹고집전〉을 극의 형식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옹고집전〉은 고약한 성격을 가진 욕심쟁이 부자 옹고집이 노모에게 불효하고 중이나 거지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알게 된 도사가 볏짚으로 옹고집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진짜 옹고집의 집으로 보낸 뒤, 송사에서 패배한 진짜 옹고집을 마을 밖으로 내쫓자 삶을 반성하고 비관해 자살하려던 걸 다시 도사가 구출해 새사람으로 개과천선시키는 줄거리의 작품입니다.

2. 따라서 '옹고집' 배역의 경우, '진짜 옹고집(실옹)'과 '가짜 옹고집(허옹)' 두 가지 배역을 연기해주셔야 합니다. (1인 2역) 원작의 설정에 따르면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은 가족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톤을 달리 연기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1인 2역이지만 사실상 진짜 옹고집, 가짜 옹고집 모두 한 배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모집 중인 배역은 A) 옹고집, B) 도사 입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배역에 해당하는 대사를 녹음해주시면 됩니다.

4. 〈옹고집전〉 극에 지원하시면 〈옹고집전〉을 극의 형식으로 각색한 〈옹회장전〉의 배역에 자동 지원됩니다. 녹음 시 원작극 〈옹고집전〉과 각색극 〈옹회장전〉 두 가지 극을 소화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밑줄 친 대사를 녹음해주세요.

A) 옹고집

40대 남성. 아주 고집스럽고 괴팍한 성미에 가진 것은 많지만 나눌 줄 모르는 사람. 병든 80세 어머니에게도 약 한 첩 지어주지 않는 불효자. 그러나 극중 어떠한 사건을 통해 개과천선하게 된다.

어머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떻게 어미의 공을 이렇게 몰라주는 거니. 어떤 효자는 병든 어미에게 얼음 속의 잉어를 낚아다 주었다고도 하던데, 그런 효도는 바라지도 않는단다. 고집아, 이제 제발 불효를 멈춰 주렴.

옹고집 <u>어머니. 오래 살아 뭐 하시게요? 세상에 제 명대로 못 살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정도면 아주 오래 사신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살면 욕심이 많아진다더니, 쯧.</u>

* 밑줄 친 대사를 녹음해주세요.

B) 도사

나이대 무관 여성. 엄중하고 단호한 톤의 목소리. 옹고집의 인간성을 고쳐놓는 인물.

도사 (소리 높여 꾸짖듯) 이 몹쓸 놈아! 앞으로도 팔십 세의 병든 모친 구박하여 냉돌방에 둘 것이냐? 불교를 업신여겨 못된 짓을 할 것이냐? 너 같은 놈은 죽여 마땅하지만, 정성이 갸륵하고 네 처자가 불쌍해서 풀어 주니 돌아가 꼭 개과천선해라.